

#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 중기중앙회, “이달 말 종료될 경우 중소기업들 ‘직격탄’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야” 고용노동부에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 지원기간이 이 달 말 종료될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근근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16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기간 한도는 60일 늘어나 당장 한숨은 돌렸으나,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포함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에 대한 혼란이 많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기간 한도 연장으로 90% 특례 지원기간도 함께 연장됐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스러워 한다”면서, “특례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10월부터 다시 기존 지원 비율로 돌아올 경우,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용 조절을 단행하게 되어 자칫 대량실업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최소한 올해 말까지 특례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발 한국자영업자지원협회장은 “코로나19로 대학교, 전시장 등 자영업에 납품처가 다 문을 닫아 우리 업계는 올해 매출액이 40~50% 가까이 감소했고 고용유지지원금을 6개월째 받으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며, “우리 사업장의 경

우 현재 근로자 40명 중 18명이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만약 지원수준이 줄어들 경우, 구조 조정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경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회장 이사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코로나로 어렵겠지만, 우리 뿌리업계는 특히나 어려운 상황이다”며, “주요 납품처가 있는 유럽, 미국 등에서 코로나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주문이 급감하고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매출액이 20%가 넘게 줄어든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우리 업체는 현재 총 근로자의 20%가 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 지원수준이 조금이라도 감소한다면 지금 인원을 계속해서 유지할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10일(목) 발표한 4차 추경안에 우리 중소기업계가 거듭 요청해 온 지원기간 한도 60일 연장이 반영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어려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다만 당장 9월말이면 종료되는 90% 특례 지원기간 연장은 이번 추경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현 수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도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특례 지원기간 연장을 위한 예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16일 김제시 백구면 포도 재배농가에서 농장주가 국산 씨 없는 포도 품종 ‘홍주씨들리스’를 수확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개발한 홍주씨들리스는 외국산 씨 없는 포도(크림스씨들리스)와 당도는 비스(18.3브릭스)하지만 산 함량(0.62%)이 높아 새콤달콤하고 식감이 아삭하다. 이달 중순부터 10톤가량이 대형마트를 통해 유통된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 맛·영양·편의성 ‘모두 갖췄다’

### 농진청, 국산 포도 ‘홍주 씨들리스’ 이달 중순부터 대형마트 통해 유통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외국산보다 에피카테킨 등 항산화 물질 함량 높아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껍질째 먹을 수 있고 아삭한 식감에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한 국산 포도 ‘홍주씨들리스’가 9월 중순부터 10톤가량 대형마트를 통해 시장에 유통된다고 17일 밝혔다.

‘홍주씨들리스’는 맛과 기능성, 간편성을 중시하는 포도 소비 경향을 반영해 2013년 개발한 품종으로 ‘씨 없는 빨간 포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송이 무게는 500~600g이고 식감이 아삭하며 은은한 머스캣향이 난다. 외국산 씨

없는 포도 ‘크림스씨들리스’와 당도(18.3°Bx)는 비슷하지만 산 함량(0.62%)이 적당히 높아 맛이 새콤달콤하다.

연구진이 ‘홍주씨들리스’의 기능성 물질 9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에피카테킨, 캄페롤, 퀘세틴, 레스베라트롤 등 7개 항산화 물질 함량이 외국산 포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암, 항염증,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에피카테킨은 ‘홍주씨들리스’에 100g당 73.6mg이 들어 있

어 크림스씨들리스(3.1mg)보다 20배 이상 많았다.

2017년부터 묘목을 보급한 ‘홍주씨들리스’의 재배 면적은 경북 상주, 전북 김제를 중심으로 약 13헥타르(ha)에 이른다.

농진청은 ‘홍주씨들리스’의 본격 출하를 앞두고 과일 특성, 기능성, 재배 유의점, 시장성 평가 관련 자료를 영상에 담아 포도사랑연구회 기술공감 밴드와 전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과수과장은 “최근 과일 소비는 건강, 기능성, 간편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맛과 건강, 껍질째 먹는 편리함까지 갖춘 ‘홍주씨들리스’가 국내 포도 시장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윤상기자



‘올해 최고의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 올해 최고의 우리술 ‘옥석 가리기’

### 농식품부, 15개 제품 선정... 탁주부문에 순창 막걸리 ‘지란지교’ 우수상 수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올해 최고의 우리술을 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년 우수 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가공인 주류 품평회이다.

우리술 품평회는 ▲탁주(막걸리) ▲악·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술) ▲소주, 일반증류주 ▲기타주류(기타주류, 리큐르)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선정기준은 국산농산물 사용비율, 술품질인증 취득실적 등 서류평가와 국내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제품 관능특성평가로 각 부문별 3개 제품(대상, 최우수, 우수)을 선정하고, 부문별 1위 제품 중 품질의 체계적 관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대령상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5개 부문 246제품에 대한 심사 결과 대령상(1점), 대상(4점), 최우수상(5점), 우수상(5점)을 선정했다. 대령상에는 협동조합 모델의 증류주 ‘모월 인’이 선정됐다. 대상으로, 탁주부문은 죽향도가의 ‘대대포’, 약청주 부문은 좋은술의 ‘천비향’, 과실주 부문은 컨슈리빙의 ‘컨슈리빙스 스위트’, 기타주류 부문은 아이비영농

조합의 ‘허니문 와인’이 선정됐다.

전북에서는 탁주부문 우수상에 순창의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대표 임숙주)’의 ‘지란지교’가 선정됐다. 지란지교는 국내산 쌀과 누룩 그리고 지역 정제수 이외 일체 첨가물 없이 제조한 전통향상 100일간 발효하고 90일간 숙성시킨 탁주다.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우리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이 다수 선정돼 우리술이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를 높이는 좋은 사례임을 보여줬다. 대령상을 차지한 ‘모월 인’은 원주지역의 쌀 토미미에 첨가물 없이 밀 누룩만을 사용한 증류주로 깔끔한 맛이 특징이고, 자체 연구소를 통한 품질관리와 강원도내 대학과의 협력으로 품질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이 인정돼 대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상을 수상한 ‘대대포’는 당양의 유기농 쌀을, ‘천비향’은 평택의 슈퍼오닝쌀을, ‘컨슈리빙스 스위트’는 영동의 포도를, 허니문와인은 양평의 벌꿀을 원료로 사용했다.

최종 선발된 제품(15점)에 대해서는 상급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김윤상 기자



순창 막걸리 ‘지란지교’

## 새만금개발공사, 시민 참여혁신단 비대면 소통

### 실업자 재취업 연계 사업 지역업체 배려 강화 등 제시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시민참여혁신단 토론회를 진행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시민참여 혁신단 위원들은 ▲실업자 재취업 연계 사업 추진 ▲지역업체 배려 강화 ▲청년창업센터사업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공사는 향후 위원들의 의견을 검토, 현안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고창군 청년창업센터사업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시민참여혁신단의 생생한 목소리는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유연한 사고로 체계적으로 소통하고, 지역상생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5월 31일 학계, 산업계, 학생,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혁신단 외부위원 1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김윤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국사업소 준감사인 비대면 화상회의 모습

## 전기안전공사, ‘준감사인’ 대상 비대면 영상회의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함중걸)는 지난 15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전국 사업소 ‘준감사인’을 대상으로 비대면(Unct)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준감사인’ 제도는 한정된 감사인력으로 인한 감사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소 자율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1년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공사가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중인 제도다. 함중걸 상임감사의 청렴특강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내부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특히, 준감사인들은 이날 내부 신고 제도(KESCO Helpline) 운영방안과 관련해 가상의 시나리오를 활용, 직접 내부 신고를 해보며,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본사와 전국 60개 사업소가 동시에 참여한 영상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는 이날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앞으로 감사 강령회의 등에도 가능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중걸 상임감사는 “전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준감사인들이 깨끗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목표로 공직자각 확립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함 상임감사는 이달 2년의 공식 임기를 마치고 연임됐다. 추가 임기는 1년으로 내년 9월 9일까지다. 공사 역대 감사 가운데 첫 연임 인사다. /김윤상 기자

## 저소득층 367명 누적 연금 수급액 23여억원

### 국민연금, ‘희망드든 연금보험료 지원’ 통해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16일 ‘희망드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저소득층 367명에게 보험료를 대부함으로써 지난 7월 현재 총 누적 23억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밝혔다.

희망드든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수급연령에 도달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저소득층에게 연금보험료를 무보증·무담보·무이자 대부해 연금 수급을 돕고, 대부금은 매월 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정기 상환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노후보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공단업무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발발 사업 중 하나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추진해왔으며, 관련 재원은 국민연금증카드 사회공헌기금으로부터 충당한다.

공단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된 수급자는 모두 당초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수령할 수 없었으나, 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최소 14만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공단은 2008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자발적 후연금 모금을 통해 ‘저소득가정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약 9억 3,000만원에 달하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2,537명 중 567명은 현재 노령 연금을 받고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단의 가용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 내전북본부, 군산나운 4단지 등 리모델링 세대 입주자 모집

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권창호)는 군산나운 4단지 영구임대주택과 익산부송 1단지 영구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세대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산나운 4단지와 익산부송 1단지는 올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 단지로 선정돼 공사중이며, 리모델링 사업은 서로 인접한 2세대의 비내력벽을 철거해 넓은 평형으로 세대통합하거나 단일세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군산 나운4단지 1단지 리모델링 18호, 세대통합 리모델링 15호 등 총 33호를 공급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단일세대 리모델링 18호, 통합세대 리모델링 23호 총 41호를 공급한다.

리모델링 세대는 입주자격을 완화돼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 및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세대에게 공급한다. 군산나운 4단지는 25일에서 28일까지 인터넷신청, 28일과 29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며, 익산부송 1단지는 10월 5일에서 10월 8일까지 인터넷신청, 10월 8일 현장신청이 가능하다. /김윤상 기자

## 열대기세미나방 방제 리플릿 제작

전북도농업기술원(박경숙 원장)은 도내 옥수수 재배 포장을 중심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열대기세미나방을 현장에서 쉽게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리플릿 500부를 제작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열대기세미나방은 바람을 타고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날아오는 해충으로 올해 도내에서는 5월 25일 김제시 옥수수 밭에서 애벌레 피해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익산=정영환 기자